

삼바 美에 R&D 연구센터 **한미약품** 지방간염 신약 공개
셀트리온 中에 바이오생산시설 **LG화학** 통풍 임상2상 큰성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K-바이오 4층사들

“퍼스트무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그동안 쌓아온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직접 만들어가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올해로 38회를 맞은 세계 최대 규모 컨퍼런스는 한층 높아진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보폭 확장하는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CDO) 연구소를 신설하며, 미국 진출 시동을 건다. 삼성바이오는 올해 최소 18개 CDO 프로젝트를 추가해 6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기준, 35개의 위탁생산(CMO) 프로젝트, 42건 CDO 프로젝트, 10건의 위탁연구(CRO)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샌프란시스코에 R&D 연구소를 먼저 출범하고, 미국의 다른 지역과 유럽, 아시아 등지로 추가 진출하는 것을 계속 검토중”이라며 “CMO에 CDO, CRO, sCMO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대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왼쪽)과 존립 부 사장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그룹의 신성장동력 '2030 비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약품 권세창 사장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2020년 비전과 주요 R&D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삼바, CMO 생산 47개 생산 목표 셀트리온 '게임체인저' 성장 포부 한미약품,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 LG화학,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삼성바이오는 현재 전 세계 CMO기업 중 최대인 36.5만리터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다. 올해는 CMO 생산 제품수를 2018년 27개, 지난해 35개에서 47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올해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인 중국으로 진출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2017년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으로부터 램시마 임상시험(IND)을 승인 받아 임상을 진행 중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현재 중국 성장부와 최종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으며 조만간 주요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12만 리터 규모의 중

국 내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직판 네트워크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램시마SC를 통해 글로벌 '게임체인저'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8년 처방약 기준, 글로벌 단일클론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81%를 기록하며, 퍼스트무버로서의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 회장은 “램시마SC가 전체 50조원 규모의 TNF- α 시장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10조원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2월 독일을 시작으로 글로벌 직판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박차'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혁신 신약의 파이프라인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차별화된 혁신성을 가진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를 소개했다. 특히,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방간 수치를 줄이는 혁신성이 주목을 받았다. 회사측은 올해 2분기 중 NASH 환자를 대상으로 HM15211의 글로벌 임상 2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항암제와 희귀질환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혁신성을 배가하겠다는 의지다. 자체 개발한 경구용 항암제인 오라솔은 올해 상반기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스펙트럼에 기술수출된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몰론티스는 FDA의 BLA(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본심사가 시작돼 올해 10월 말 시판허가 승인이 예상된다.

한미약품 권세창 사장은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혁신 신약의 R&D에 매진하고 있다”며 “성과 기반의 지속적인 R

&D와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제약강국의 새 역사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임상 2상에 진입한 통풍, 만성염증질환 치료제 임상 성과를 발표했다. 통풍 치료제는 전임상과 임상 1상 시험 결과 기존 요산 생성 억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심혈관 질환 부작용 발현 가능성을 낮추고 요산 수치를 충분히 낮췄다. 만성염증질환 치료제는 전임상과 임상 1상 시험 결과 신속한 면역세포 감소와 표적 단백질에 대한 높은 선택성이 확인됐다.

LG화학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자체 R&D 역량 집중과 더불어 신약 과제 도입, 협력 모델 구축 등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고객 관점 신약과제 확대에 보다 집중해 혁신 신약을 지속 출시하는 글로벌 바이오제약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elle@metroseoul.co.kr

>> 1면 '시 반대제 1조'서 계속

20일부터 9억 이상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완전히 막힌다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시행 4월20일까지 보증 1회 한시적 허용 15억 초고가는 유예없이 규제키로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물론 서울보증보험(SGI) 등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시가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 모두 한시적 유예조치없이 규제를 전면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속만 제외하고는 예외조건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전세대출 보증 제한

주공금, HUG 등 공적보증과 같이 SGI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

<전세대출 보증제한 관련 이용제한 개황> /자료=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주택보유수 (부부합산)	연소득(부부합산)	
	중·저소득자(1억 이하)	고소득자(1억 초과)
무주택	○	○
1주택	○	공적보증 제한
	공적보증 제한 사적보증 제한	공적보증 제한 사적보증 제한
다주택	공적보증제한 / 사적보증제한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한다. 만약 20일 이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금납부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된다.

고가주택보유 차주가 기존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었다면 연장은 허용된다. 그러나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을 늘려야 한다면 신규대출로 보고 만기를 연장해줄 수 없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할 경우에 한한다. 이 유예조치도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예외조치는 최소화 했다. ▲직장이 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3개월마다 주택보유 확인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고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보증기관을 불문하고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역시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라면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진 않는다. 다만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은행은 길어도 3개월 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을(HOMS)를 통해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대출 회수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무보증대출 등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는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나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R&D 24兆 투자하고 부처간 시스템 통합

'디지털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유튜브 등과 같이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분야의 현업 강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개발(R&D) 총괄부처로서 국가 R&D 24조2000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구개발혁신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전략이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가칭)세종과학펠로우십'을 11월 공고해 2025년까지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을 2조300억원으로 늘리고 신진연구를 2246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